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편집 : 양재웅

모든 성도들을 위한 복음의 잔치

2009년 제1차 청지기훈련

주제 : 그리스도의 기도(시편 16:1)

일시 : 2월 20일(금), 저녁 7시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2009년 신년예배로 시작된 복음의 은총은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어둠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롬 1:5~6).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더욱 교묘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엡 6:11). 보혈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무엇보다도 제1차 청지기훈련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청지기훈련의 본문인 시편 16편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매우 명료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청지기훈련 참석을 가장 우선하시기 바랍니다(눅 14:23). 청지기훈련은 일부 직분자들을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복음의 잔치입니다. 보혈로 충만한 훈련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위임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2009년 전반기 충현장학생 명단은 본지 5면 참조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복음과 믿음 (로마서 1:17)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안에는 '복음, 하나님의 의, 계시, 믿음' 이 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수없이 제시하였다.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 해석을 함으로서 전하여지는 내용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 '복음' 을 하나의 교리나 종교적인 진리, '하나님의 의' 는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는 하나의 속성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계시' 는 감추어져 있던 사상이나 사실을 나타내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였고, '믿음' 은 이 종교적인 진리를 참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간의 결정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선입견적인 신학적인 해석을 모두 버려야 한다(벧후 1:20~21).

복음은 단지 어떤 사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고전 15:1~4 ; 골 1:13~14).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거룩한 하나님의 특성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골 1:19~22).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실존이며 역동적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역사하신다(롬 3:25~26). 믿음은 이러한 복음에 관한 사실들에 관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 삶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고후 5:15~17). 그러므로 복음과 믿음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 믿음은 복음이 있기 전에 있을 수도 없고 또 복음을 떠나 믿음 자체가 있을 수도 없다. 믿음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인간이 복음을 믿을 때, 그때서야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로마서 전체 메시지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안에 함축되어 담겨져 있다(갈 3:11).

이스라엘이 갈대아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하박국은 교만한 침략자는 망할 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하박국이 이미 알려진 잠언의 말씀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였다(잠 12:28, 29:25). 이 잠언은 교만한 자들에게 적용되어 왔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말씀은 유대인들과 갈대아인들에게 적용되었다. 또한 이 말씀은 회당 안에서도 선포되었으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전통에 따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613개의 계명을 받았다. 다윗은 이를 종합하여 11개로 설명하였다(시 15편). 이사야는 6개로 종합(사 33:15)하였고 미가는 셋으로 함축하였다(미 6:8). 또한 이사야는 둘로 만들어 전하기도 하였다(사 56:1). 이 모든 구약의 계명은 결정적으로 하박국의 말씀에서 표현되었다(합 2:4). 율법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친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자신들이 율법과 언약에 성실하였기 때문에 살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믿음과 성실함으로 인하여 의인은 살 것이다.

바울은 하박국의 말씀으로 무엇을 설명하는가? 율법에 의한 의를 취하여 그와 정반대적인 입장에서 믿음의 의를 언급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신령한 내용이 그대로 알려지지 못하였음을 깨달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으로써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알려준다(고전 10:11).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신 빛 가운데서 성경이 옛 선지자들에게도 믿음의 의에 관하여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다(갈 3:8~9).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는 그 깊은 뜻이 확실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베일이 벗겨져 감추어져 있던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창 15:6).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선포했다(행 13:39~41). 복음에 의하여 놀라운 믿음, 본질을 깨달았다.(고후 3:14~17).

하박국 선지자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준 분은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베일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박국의 말씀은 아직도 율법에 근거한 의로움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 깊은 뜻이 계시되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은총의 백성들이며 믿음의 자녀들이다. 왜 그런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히 12:1~2).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신다.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아멘.

Sermon for Next Sunday

THE BLESSING OF GIVING AND RECEIVING

(7)"Is it not to divide your bread with the hungry And bring the homeless poor into the house;
When you see the naked, to cover him; And not to hide yourself from your own flesh?
(8)"Then your light will break out like the dawn, And your recovery will speedily spring forth;
And your righteousness will go before you;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your rear guard. ···
(12)"Those from among you will rebuild the ancient ruins; You will raise up the age-old foundations;
And you will be called the repairer of the breach, The restorer of the streets in which to dwell. (Isaiah 58:7~12)

Today's message is the word of the Lord. God is crying out "loudly" to tell you how to receive real blessings(Is. 58:1). The Israelites, like today's Christians, really wanted to get God's blessings but they didn't. The reason they missed out is because they didn't grasp what the Lord wanted them to do. They did what they thought was acceptable to God. God wants you "···to loosen the bonds of wickedness, to undo the bands of the yoke, and to let the oppressed go free"(Is. 58:6). Jesus said,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Mt. 11:28~30). The church of Christ has to proclaim the gospel, so that God's people can receive salvation and be freed from the bondages and ultimate destruction of sin. If you want to receive God's blessings, then you have to learn to give. Christ Himself gave His life on the cross to provide your salvation. Paul proclaimed,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Gal. 2:20).

All the heroes in the Bible, the men and women of real faith, gave their lives as martyrs, "and others experienced mockings and scourgings, yes, also chains and imprisonment. They were stoned, they were sawn in two, they were tempted, they were put to death with the sword; they went about in sheepskins, in goatskins, being destitute, afflicted, ill-treated (men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wandering in deserts and mountains and caves and holes in the ground. And all these, having gained approval through their faith, did not receive what was promised, because God had provided something better for us, so that apart from us they would not be made perfect"(Heb. 11:36~40). Even the early church members gave to enable others to survive, "And the congregation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soul; and not one of them claimed that anything belonging to him was his own, but all things were common property to them"(Acts 4:32). Paul emphasized God's giving and receiving law, "Now this I say, he who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he who sows bountifully will also reap bountifully. Each one must do just as he has purposed in his heart, not grudgingly or under compulsion,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2Cor. 9:6~7). It is very sad that so many of today's Christians don't think this way. The truth is that how much of God's blessing you want to receive depends on how much you give.

My dear friend, the Lord commands Christians to give. God charges you to give to the hungry, homeless, and naked, "Is it not to divide your bread with the hungry and bring the homeless poor into the house; when you see the naked, to cover him; and not to hide yourself from your own flesh"(Is. 58:7)? Spiritually, the lost and poor need the Word of God; they need to be given the gospel. Giving is first and blessings follow. Jesus Christ gives us everything,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2Cor. 8:9). Giving to others means you are following Jesus. Your salvation should always remind you to give. A giving church becomes a growing church! If you judge, condemn, and do not forgive others, then both men and God will treat you the same, and you shall be judged, condemned and unforgiven both on earth and in heaven. Start giving and live a true Christian life.

My dear friend, the Lord makes a promise to Christian givers. When you give, God will give you more, "And if you give yourself to the hungry and satisfy the desire of the afflicted, then your light will rise in darkness and your gloom will become like midday. And the Lord will continually guide you, and satisfy your desire in scorched places, and give strength to your bones; and you will be like a watered garden, and like a spring of water whose waters do not fail"(Is. 58:10~11). God pours good things upon Christian givers. Jesus said,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They will pour into your lap a good measure—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For by your standard of measure it will be measured to you in return"(Lk. 6:38). Giving is an investment in your future. Proverbs 19:17 says, "One who is gracious to a poor man lends to the Lord, and He will repay him for his good deed." Giving is like sowing seeds, without sowing there is no reaping. "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ever a man sows, this he will also reap. For the one who sows to his own flesh will from the flesh reap corruption, but the one who sows to the Spirit will from the Spirit reap eternal life"(Gal. 6:7~8). While you still have opportunity, choose to do good to all people, especially to those who are of the household of the faith, and give what you can to those in need.

My dear friend, the Lord guarantees Christian givers a reward, "Those from among you will rebuild the ancient ruins; you will raise up the age-old foundations; and you will be called the repairer of the breach, the restorer of the streets in which to dwell"(Is. 58:12). God's principle is clear and challenging: a person receives what he gives. Galatians 6:9 encourages, "Let us not lose heart in doing good, for in due time we will reap if we do not grow weary." This very powerful statement from Jesus should open your eyes,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Mt. 16:25). If you give your life to Christ, you will get eternal life. However, if you try to horde your material and spiritual blessings for yourself, you will lose your life. Giving ultimately results in receiving. There is no greater reward than eternal life. If you want to receive the blessing of eternal life, then listen to the Lord God and give of yourself to Christ and others.

Giving and receiving are wonderful blessings. As a Christian, giving is a tremendous practice that leads to great blessings, "Then your light will break out like the dawn, and your recovery will speedily spring forth; and your righteousness will go before you;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your rear guard. Then you will call, and the Lord will answer; You will cry, and He will say, 'Here I am.' If you remove the yoke from your midst, the pointing of the finger and speaking wickedness"(Is. 58:8~9). Please be a giver of faith and receive God's grace with appreciation and thanksgiving. Amen.

다음 주일 설교

주고 받음의 은총

**(7)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 (12)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7~12)**

김성관 목사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사 58:1).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여겼던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사 58:6)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속박에서 풀려나며 궁극적으로 죄로 인한 멸망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의 모든 영웅들, 즉 참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던져 순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히 11:36~40).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32). 바울은 주고 받는 하나님의 법을 역설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6~7). 슬프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받느냐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린 자, 유리하는 자, 헐벗은 자들에게 주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사 58:7).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주면 은총은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항상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이나 천국에서 비판 받고, 정죄 받고,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베풀기를 시작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사 58:10~11).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주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잠언 19:17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주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수확도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7~8).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행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상급을 보장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2).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하며 도전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준 것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9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은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뜨게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5). 여러분의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을 위해 물질이나 영적인 축복을 쌓아둔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받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생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청종하고 자신의 것을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주고 받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는 것은 놀라운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사 58:8~9). 믿음으로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수요1부예배 메시지 / 마가복음 강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가끔씩 자신의 삶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성경 중 일부를 자의로 해석하며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분명해 진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도 없이 성경을 인용하며 세상문화와 섞으니 그 결과는 뻔하다. 우리는 진실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의 지식과 경험, 세상문화와 상황을 위해 성경을 활용하지 말고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그때 말씀이 전하는 참된 메시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세 제자 중 한 명이다. 그럼에도 그의 초점은 매번 세상을 향해 있었다. 이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 사로잡힘을 받은 후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에는 말씀에 세상의 것들을 섞어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요일 1:1)이며 그 말씀의 실체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혔다.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요일 1:2). 주님의 말씀 안에는 참된 사귐이 있으며 참된 기쁨이 충만하다(요일 1:3~5). 말씀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깨끗해지기 때문이다(요일 1:6~7). 따라서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깨끗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요일 1:8). 말씀을 붙들 때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를 맺게 되며 참된 회개를 하게 된다(요일 1:9~10).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요 1:1). 말씀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 1:2~3).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셨다(요 1:4).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요 1:9~11).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요 1:12~13).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요 1:14).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오직 은혜로 넘칠 뿐이다(요 1:15~16).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 그 답이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말씀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자.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진다. 어둠은 물러가고 하늘의 빛으로 모든 것들은 환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고백(계 22:20)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참된 교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우선해야 할 것은 말씀이다(요일 1:1).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요 1:1). 이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요일 1:3). 교제는 사귐을 의미한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교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교제를 중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와의 사귐도 없으며, 한 영혼에 대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않은가? 이것이 잘못인 줄도 알고 있으면서 자존심, 명예심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회복하자. 십자가 안에서 성도 간에 참된 교제를 나누자.

충만한 기쁨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을 때 충만한 기쁨이 있다(요일 1:4).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영원하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15:11).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제자의 삶이 되기 원하신다(요 15:7~8).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쁨의 증거는 무엇인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요 15:16~17). 바로 충성의 열매이다.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죄에 대해 용서함이 가능하다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을 때 죄를 용서받는다.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어둠이 어떻게 어둠을 밝게 하겠는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빛이다(요일 1:5~6).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오직 십자가의 은총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준다.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다(요일 1:8).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회개이다(요일 1:9).

참된 교제는 모든 신자들에게 충만한 기쁨,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한다. 이것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다. 지금, 무엇 또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말씀을 붙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누는 교제라면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죄에 대해 용서받음이 가능하다는 은총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며 복음을 전파하자. 아멘.

마가복음 강해 57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찍 #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매오 (10:46~52)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기적이다.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는 맹인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았다. 그때의 맹인은 부자였다. 사람들은 그 부자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를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셔서 고치셨으며(막 8:23), 이 기적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막 8:26).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막 8:27). 비록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막 8:30). 또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은 영적 맹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 마지막 경유지인 여리고로 가셨다.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을 막았던 거대한 성이 있던 곳이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다시 그 성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선포되었다(수 6:27). 바로 그 성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셨고, 맹인 거지 바디매오를 만나셨다(막 10:46).

예루살렘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여리고성 길가에 맹인 거지 바디매오는 구걸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막 10:47). 그는 반복해서 외쳤다(막 10:48). 비천하게 살아가던 바디매오는 왕이며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마 1:20 ; 막 11:10)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바디매오의 고백은 신기할 따름이다. 은총이 아니고서는 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마 11:25). 분명 예수님은 예언된 그리스도 곧 메시아시다(막 12:35~37).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 율법에 정통한 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란 사실 앞에 혼란스러워했다(마 12:23 ; 요 6:14~15, 7:26,41). 이에 반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바디매오는 확신하였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막 10:50).

예수님은 맹인 거지 바디매오에게 말씀하셨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막 10:51). 이에 그는 대답하였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랍오니'(요 20:16)로서 깊은 경의를 담은 최고의 존칭이다. 바디매오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으로 고백한 것이다. 예수님은 바디매오의 간구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막 10:52). 예수님은 그에게 단순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의 근본적이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셨다. 바디매오는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입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입은 바디매오는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 곧바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입성할 때는 선두에서 서서 찬양을 지휘하기까지 하였다.

가장 비천한 처지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맹인 거지 바디매오는 기독교가 은총의 종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수님이 바디매오를 고쳐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바디매오의 선행, 공로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한 가지를 보셨다. 그것은 믿음이다(막 10:52). 믿음만이 우리를 하늘 가는 밝은 길(찬 493장)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도 현실에 매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지 못했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현실을 보지 말자. 영의 눈을 뜨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나의 지식, 감정, 경험을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자(롬 1:6).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아멘.

2009년 전반기 충현장학생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원생 (15명)

강은미	김연희	김진옥	김희영	박이석	백수현	유미경	윤은희
이경진	이복희	이재원	장 작	천명기	최예솔	최지혜	

대학생 (108명)

강문구	강부희	강지원	강호성	고혜진	고홍섭	권도형	김남우
김다혜	김대은	김대혁	김도홍	김동석	김동현	김보정	김사무엘
김성은	김성혜	김소담	김에스더	김연희	김영민	김예진	김용현
김우섭	김유림	김윤경	김윤영	김은진	김정아	김지선A	김지선B
김지수	김지윤	김지혜A	김지혜B	김진희	김태훈	김홍미	김희진
남지혜	노하은	문상효	문은희	민미가	박다솜	박미연	박수경
박은지	박장혁	박정윤	박주영	백민지	백승희	백지수	백지연
변해연	손석호	심재원	엄예은	염새봄	예지희	왕현정	유지현
윤수정	윤혜리	이다영	이다정	이동훈	이상용	이새롬	이소희
이송이	이슬기	이신애	이윤진	이은혜	이정덕	이정희	이주원
이지윤	이지혜	이창배	이초환	이화영	임지혜	잔드라	장서윤
장윤호	전다인	전숙현	정나혜	정성미	정유진	정지혜	정찬영
조상미	조천영	주다인	차병철	최민영	최정우	추수환	하지명
한경해	한정훈	현건희	황인욱				

고등학생 (93명)

강성민	강하은	고영규	공예원	공진규	곽혜원	권신영	김기태
김민석	김소라	김신혁	김유웅	김정연	김정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일	김태희	김하은A	김하은B	김한나A	김한나B	김현승
김현철	김형훈	남기훈	남은혜	노주원	문영광	문정훈	민사라
민준하	박경주	박서정	박연경	박요섭	박지웅	박채원	손연수
송치영	신예영	양성윤	양정모	양찬미	여성민	오동훈	원종건
유지현	윤영훈	이경아	이성민	이소연	이예주	이예현	이재영
이진혁	이찬용	이현주	이혜린	이희진	임인선	임정아	장성훈
전동섭	전사무엘	전 진	전하예	정수민	정승우	정예림	정의림
정현종	조수빈	조유준	조진희	조하은	조현수	지현덕	최미영
최예진	최용현	최은빈	최재필	최현호	한상현	한이레	한준식
한태희	홍덕용	홍진호	황금산	황서현			

이상 216명

충현장학생 선발자 영성훈련(대학원생 · 대학생 선발자에 한함)

일시 : 2009년 2월 13일(금), 16:00~18:00

장소 : 베다니홀

좁은 길로 가오리라

저희 구역예배는 감사로 늘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새신자와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새신자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며 알아가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에 능력이 나타나심을 확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학습을 받으신 시어머님은 처음 교회에 나오실 때 교회가 멀다고 가까운 동네교회로 나가자고 하시더니 지금은 위임목사님의 설교말씀이 성경적이라고 하시며, 주일 아침이면 제일 먼저 서두르십니다. 〈좁은 길로 가오리라〉라는 찬송을 좋아하셔서 구역예배 때마다 부르십니다. 시어머니를 변화시키신 주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한 형제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깨닫고, 성령충만한 그 형제를 만나길 기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내 생각과 의를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의 가정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남빈(집사, 7교구)

주님과 하나 되어

요즘은 겨울이라 해가 늦게 뜬다. 게다가 날씨도 추워서 일찍 일어나기가 더욱 싫어진다. 남편의 출근준비를 도와 주면서 '그냥 집에 있을까?' 하는 마음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남편의 배려로 기도원으로 향한다. 남편은 내가 교회에 가고 기도원에 가는 것은 배려하나 정작 본인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속상하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많이 아쉽다.

하지만 주님께서 남편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충현기도원에 가려면 왕복 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오가는 길에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어 좋고, 기도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하여도 방해 받지 않는 이 시간이 정말 좋다.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에도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다. 다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교통하고 싶다.

임재해(집사, 12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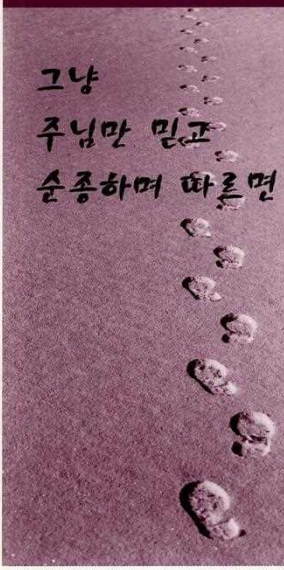
담대한 믿음으로

힘들게 현우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작품은 너무도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톱, 눈썹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나고 감사했습니다. 아이 낳기 전 통증이 심해질수록 저는 '지옥의 고통이 이렇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우의 한 돌을 앞두고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시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의식하여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할 감사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예배를 드렸지만 소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지 못한 저의 믿음 없음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현우가 영아부예배를 드리면서 박수를 치고 기도의 손을 모을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왜 진작 현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지…. 주님의 뜻대로 현우를 키울 수 있도록 또한 연약한 제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황보라(성도, 13교구)

땅끝까지 /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선교훈련 중에도, 선교지로 향해 가는 중에도, 2009년 선교 첫 팀이라는 말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만 더욱더 열심히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사역 첫날부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건회와 평가회 때 기도를 하며 더 깊은 곳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정말 순수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할머니께 전도지를 읽어드리고, 영접기도를 함께 하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손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헤맑게 웃으며 "쁘레하 예수?"라고 말한 것이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또 아이들 소리를 따라 가 보니 학교가 있어 팀원들과 다같이 전도를 하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을 부르며 율동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점점 우리에게 오더니 우리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 그 아이들 중에서 8살난 남자아이 혼자서 율동과 찬양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앞 잔디밭에서 찬양을 하며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니 점점 수줍움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 읽었습니다. 선교사역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도행전 11장 말씀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냥 주님만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비춰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무사히 은혜 가운데 선교를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아라(학생, 중등2부 2팀)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2일(월) ~ 2월 11일(수)	직원 1팀	최준호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0일(화) ~ 2월 18일(수)	대학부 2팀	전종일
2월 10일(화) ~ 2월 18일(수)	대학부 3팀	정재영
2월 10일(화) ~ 2월 18일(수)	대학부 4팀	문경숙

겨울 성경 학교

4과4반 유자림

아침 일찍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데리고 버스와 전철을 타고 교회에 갔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 주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설교하셨다.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그 동안 전도 했던 2명의 친구들이 생각났다. 설교 말씀이 끝나고 주제 찬송 '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을 부르고 점심을 카레라이스로 맛있게 먹은 후 게임을 했는데 그중에서 '사랑을 전해요'라는 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미니 올림픽을 했는데 떨어졌다. 끝나고 오면서 나는 내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가 되어야 겠다고 결심했다.

(초등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은 단연 천로역정이었다. 10개의 미션을 통과해야만 하는 어마어마한 미션이었지만 하나하나 통과해 나갈 때마다 짜릿함이 있었고, 마음에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3시간에 걸친 대규모 미션이어서 심신이 매우 피곤했다. 점점 지쳐갔고 쏟아지는 졸음과 피로때문에 견디기 힘들만큼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목사님과 대면하는 '심판의 방'에 들어갔을 때 졸음과 피로가 싹 사라졌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히지 않은 것을 상상하고 또한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니 오금이 저렸다. 마지막에 모든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명책, 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장상은(중등3부)

주님이 예비하신 쉼터, 엘림관

엘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쓴 물을 내던 마라지역을 떠나 머물렀던 곳으로 풍부한 샘물과 시원한 그늘이 있던 곳이다. 홍해를 지나는 극도의 긴장감과 마라에서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 엘림이었다. 이번 고등부수련회 때는 교사숙소가 새로 지어진 엘림관이라고 해서 매우 기대되었다. 우리 교회 식구 모두가 기도원 증축을 놓고 기도해왔기에 '새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졌을까?' 꽤 궁금하기도 했다.

하루 종일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느라 좋기도 했지만 몸은 피곤했다. 피곤한 몸으로 숙소인 엘림관으로 향했다. 깨끗하고 예쁘게 단장된 새 숙소를 보니 영하의 날씨로 얼었던 몸이 저절로 녹는 듯했다. 엘림관은 에스더관이나 다니엘관과는 용도와 특성이 다른 만큼 색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방에는 깨끗한 침대, 미니냉장고, 넓고 깨끗한 샤워부스가 달린 화장실, TV(PDP), 화장대와 조명기구까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층별로 있는 소집회실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침구와 작은 책상들이 넉넉히 구비되어 있어서 때로는 숙소로, 때로는 소모임이나 집회를 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

목마른 영혼이 언제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새 숙소인 엘림관을 통해 나에게 넘치는 샘물과 쉬기 좋은 그늘을 느끼게 해 주셔서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한 수련회였다. 엘림관의 이곳저곳 다 살펴보지 못하고 잠깐 머물다 와서 매우 아쉽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엘림관에 머물며 기도도 하고, 은혜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 싶다.

강미경(교사, 고등부)

십자가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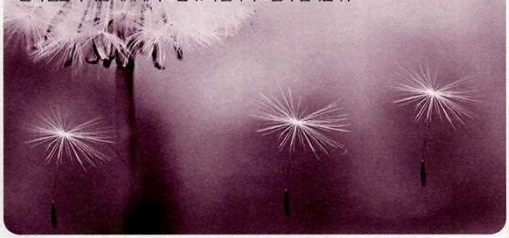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

"저는 주님께 갑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일편단심과 단순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정글로 들어간 짐 엘리엇 선교사는 1956년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다. 그녀가 남편의 뒤를 따라 남편이 죽임을 당했던 그곳의 선교사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일 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에게로 갔는데,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한 아우카족은 다행히 그의 부인을 죽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갔던 것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우카족을 위해 여러 해 동안 헌신하였는데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부인에게 몰었다고 한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중에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나중에 아우카족의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스데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바울 그리고 짐 엘리엇 같은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온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다. 고난이 있고 십자어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영원의 세계에 초점을 맞춘 은총의 자녀들이기에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선교지를 향해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심장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빌 1:8). 지금, 선교가 한창 준비중이다. CMTC를 비롯한 다양한 선교훈련은 몸론이거니와 교구와 부서에서도 팀들이 구성되어 준비하고 있다. 요즘 제일 바쁘다는 청소년들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를 다녀왔고 또 준비 중에 있다. 그럼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선교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한두 번 단기선교를 갔다 왔기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주님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신다.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는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내 주를 가까이

요즘 금요찬양집회는 로마서에 담겨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특히 말씀 듣기 전에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찬송은 주님이 받으셔서 그런지 은혜로 충만하다. 충현찬양곡집에 있는 〈주 나에게 주시는〉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등의 찬양을 드리면서 가사를 통해서 얻는 보혈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멜로디에 담겨 있는 의미들에 대한 위임목사님의 세심한 설명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의 깊은 바다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듯하다. 특히 혼자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찬양의 하모니로 인하여 은혜는 배가 되는 듯하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특히 지난 시간에 배운 〈내 주를 가까이〉는 정말로 좋았다. 단순한 박자와 멜로디 속에 담겨 있는 은혜의 강물은 본당을 차고 넘쳐 흘렀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심은 십자가 짐같은 고생길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 부르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그만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은 더욱 힘들고 고단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기쁨과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길만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리라! *"천성에 가는 길 험하고 험해도 생명 길 되나니 주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 부르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과 함께 나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찾았던 위선을 회개하였다. 함께 드리는 찬송의 하모니로 인해 내 중심적인 신앙의 올무에 빠져 예수님을 이용하여 세상에서의 복과 하늘의 복을 동시에 누리고픈 간교한 믿음을 토설하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였다. 그리고 나는 더 큰 소리로 아니, 작은 소리지만 자기 부인의 믿음을 담아서 찬양하였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 부르며 주께 더 나가기 나 원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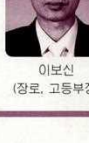
청지기칼럼

쪽발 가진 짐승과 영원한 세계

중학교 시절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어느 여고생이 다가와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었다. 교회에 오면 예배도 드리고 선배들이 영어공부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와보라고 하였다. 끈질기게 권하여 난생 처음으로 읍내 외곽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교회에 첫발을 디디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그 누나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작은 천사가 아닌가 생각하며, 하나님과 그 누나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곤 한다. 어린 시절과 살아온 환경들을 돌이켜보면 세상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였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택하여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세월을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살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만 알았다. 이런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게 된 것은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는다.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게 하셨다. 부정한 짐승과 구별된 굽이 갈라진 짐승은 주로 풀을 먹고 사는 온유하고 깨끗하며 평화스러운 동물들이다. 그런데 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들을 정하다고 하셨을까? 굽이 갈라진 것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상징한다. 즉 세상과 분리된 삶을 말한다. 또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몸에 십자가를 새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모든 음식을 천천히 소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성도는 말씀을 되새기고 소화해야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만이 새김질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복음이 흐려져 가는 이때, 주님께서는 충현교회를 사랑하사 모든 예배와 집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되새겨 먹게 하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는 쪽발을 가지고 새김질하는 짐승과 같이 참으로 연약한 자이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싶어도 굽이 갈라져 있기에 천천히 달리거나 걸어야 한다. 맛있는 고기를 빨리 배불리 먹고 싶어도 새김질하는 위장 때문에 풀과 곡식만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세상에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좇아, 이생의 자랑을 하며 사자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예리하고 빛나는 눈과 튼튼한 몸, 그리고 탄력 있는 발과 날카롭고 강한 발톱과 힘찬 날개를 가지고 마음껏 뛰기도 하고 날아 보고도 싶다. 그러나 주님께서 굽이 갈라지며 새김질하는 짐승으로 부르셨다. 그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손길로 질그릇과 같이 빚으셨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덮으셔서 정한 짐승으로 만드셨다. 굽이 갈라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되새기며 굽이 갈라진 발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리"(고후 4:16~18). 아멘.



이보신
(장로, 고등부장)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8	박상희	15	청년2부	김종용(10)	179	박구경	11	청년2부	최상기(24)	190	이재호	19	대학부	이정신(18)
169	김기현	15	유치부	김종용(10)	180	윤은진	10	청년1부	김성현(18)	191	김덕희	9	유치부	유종희(9)
170	조윤용	3	청년1부	윤하원(13)	181	홍승표	18	청년1부	이보신(2)	192	박수진	21	고등부	김정훈(21)
171	배양희	20	장년2부	이상욱(14)	182	이경희	16	청년1부	남용승(9)	193	박고은	9	고등부	이창호(9)
172	이민희	6	청년1부	황치희(6)	183	박광진	23	중등2부	김종성(10)	194	정선라	9	고등부	이창호(9)
173	조민영	13	청년1부	황치희(6)	184	박수연	23	중등3부	김종성(10)	195	전동화	17	장년3부	장봉순(17)
174	이도형	2	고등부	엄유선(1)	185	권서빈	3	청년2부	정순옥(13)	196	박 준	14	청년1부	김종미(1)
175	박은지	3	고등부	엄유선(1)	186	홍정주	18	청년1부	김유자(6)	197	송지현	21	중등1부	김은영(21)
176	김기성	6	장년3부	윤금자(6)	187	홍미경	14	청년1부	이석재(18)	198	임기환	21	중등3부	문영진(21)
177	김석미	9	청년1부	나영실(17)	188	신혜빈	19	중등3부	김명은(18)	199	남상진	22	청년1부	김영임(22)
178	김복업	7	소망부	곽경숙(7)	189	우이미	2	청년1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 임

1. 집사회 2지회 기도회
   일 시 : 10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베다니홀
   대 상 : 2지회소속 안수집사 전원

별 세

1. 노승소 타교성도(이기홍 성도의 장인 · 노계운 집사의 부친, 6교구 가락1구역) / 1월 20일 별세, 1월 22일 장례
2. 조돈옥 씨(박정숙 집사의 시부, 6교구 잠실4구역) / 1월 28일 별세, 1월 30일 장례
3. 이종면 성도(윤익열 성도의 남편 · 이세영 장로의 부친 · 장혜선 집사의 시부, 8교구 둔촌1구역) / 1월 30일 별세, 2월 2일 장례
4. 홍진욱 성도(백종운 안수집사의 모친 · 홍점순 권사의 시모, 14교구 서초3구역) / 1월 31일 별세, 2월 2일 장례
5. 김경숙 성도(김재종 집사의 장모 · 이창순 권사의 모친, 14교구 무지개구역) / 2월 1일 별세, 2월 3일 장례
6. 손진태 타교장로(최정언 성도의 장인, 6교구 삼전3구역) / 2월 2일 별세, 2월 5일 장례

결 혼

1. 조승호 군(조춘기 집사 · 정귀애 집사의 아들, 타교) 박은영 양(박준배 집사 · 유명례 집사의 딸, 9교구) / 14일(토) 13:00, 대구 동일교회 본당
2. 박 현 군(박기배 성도 · 주안자 성도의 아들, 9교구) 이연아 양(이은춘 성도 · 이순자 성도의 딸, 9교구) / 14일(토) 15:00, 천년부페 & 웨딩홀 4층 천년홀

2009년 겨울수련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롬 1:1~4)

부서	일시	장소
청년1부	2월 13일(금)~14일(토)	충현기도원
에바다부	2월 14일(토), 성인반	에바다부실
청년2부	2월 28일(토)	제2교육관2층, 코이노니아홀 에바다부실

총력 교회주변 전도

일 시 : *여전도회* 2월 11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2월 14일(토) 14:00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301호 2지회-307호 3지회-401호 4지회-407호

집사회 5~17대 영성훈련

일 시 : 2월 15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장 소 : 베다니홀 대 상 : 5~17대 안수집사 전원

선교언어 훈련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501호(캄보디아) 510호(베트남) 504호(네팔)

2009년 제4차 CMTC ❷

(교육과정 : 3주간, 장소 : 갈릴리홀)

시 간	2월 8일(오늘)
18:15~18:45	제3강 선교지 영적 상황
18:45~19:10	제4강 복음을 통한 팀사역의 문제해결
19:10~19:30	제5강 영성기도회

교회직원(축탁직) 모집

1. 모집부문 안내직
   (만 63세 미만 남자 세례교인)
2.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타교인)
3. 서류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404)

2009년도 제1차 학습 및 세례식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8일 (오늘)	1교시 15:00~15:50	성경 개요 (강호성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란? (최성득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론 (최강전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박용현 목사)	교육관 304호		
2월 15일 (다음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강현철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이광현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란? (탁정헌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2월 22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2월 충현 기도의 창

① 2월 20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을 2009년 제1차 청지기훈련(그리스도의 기도, 시 16:1)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③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④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⑤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전 4:6)되게 하소서.

⑥ 1 · 1 · 1 전도(딛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⑦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⑧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⑨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새벽기도회 (2/9~2/15)

	9 (월)	10 (화)	11 (수)	12 (목)	13 (금)	14 (토)	15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이 훈	유현철/윤선한	강현철/나승은	강호성/윤병식	윤요한/김상칠	김창성/한성임	이재영/임태주
설 교 본 문	막 11:12~14	단 8:15~27	단 9:1~12	단 9:13~19	단 9:20~27	단 10:1~9	단 10:10~21

예배 담당 (2/11~2/15)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2/11	수요 I	안타까운 질문(롬 2:4) 김성관 목사	유현철	남영순	큰 죄에 빠진 나를(호산나 찬양대)
2/11	수요 II	셀 수 없는 큰 무리(계 7:9~17) 정민권 목사	안일찬	임복례	정결하게 하는 샘이(실로암 찬양대)
2/13	금요찬양	김성관 목사	박준식		예루살렘 찬양대 / 트럼펫 중주 / 소프라노 김희영
2/15	주일 I	주고 받음의 은총(사 58:7~12) 김완수 목사	최진철	박광식	〈예배 전 찬양〉
2/15	주일 II	주고 받음의 은총(사 58:7~12) 이재영 목사	정충신	지규성	위대하신 주를 외 / 바이올린 김유정(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악장)
2/15	주일 III	주고 받음의 은총(사 58:7~12) 김성관 목사	이희식	조중민	인류는 하나 되게 외 / 바이올린 김유정(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악장)
2/15	주일 IV	주고 받음의 은총(사 58:7~12) 안치원 목사	윤수일	진학래	주 음성 외에는 외 / 소프라노 문은희(아멘 찬양대 솔로이스트)
2/15	주일 V	주고 받음의 은총(사 58:7~12) 양재웅 목사	황진섭	최윤덕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외 / 예본 중창단(지도 : 이상민)
2/15	주일찬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40) 김성관 목사	탁정헌	채홍표	예본 중창단 / 핸드벨 연주대 / 2교구

2009년 제1차 청지기훈련

주제 : 그리스도의 기도(시편 16:1)
일시 : 2월 20일(금), 저녁 7시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 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등 1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등 2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등 3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 년 1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 년 4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1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 릴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에 바 다 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주) 오전 8:30~오후 6:00 (금) 저녁 6:30~저녁 9:00	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 다 니 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1교육관 7층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 현 복 지 관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로

노광현 당회서기	이 훈 재정위원장	김종구 충현기도원감	이창호 전도위원	차신득 제3교육위원장
이종석 찬양위원장	임무천 22교구장	진홍용 행정위원장	전홍렬 재정위원	김단용 18교구장
한송규 기획위원	김환기 소망부장	원용철 선교위원장	이형수 건축위원	안동현 장년3부장
황의만 12교구장	김구형 제2교육위원장	최윤덕 23교구장	이계인 실로암찬양대장	박덕양 시설영선부장
이태식 11교구장	박홍규 봉사위원장	권명옥 예배위원장	조종환 제2교구위원장	배춘식 차량안내부장
김영달 기획위원장	이실호 전도위원	최지윤 건축위원장	노영한 19교구장	박철구 9교구장
정청길 장년2부장	신상수 재정위원	고제승 7교구장	강철형 기획위원	김영은 기획위원
이달옥 소년부장	장철환A 새가족등록실장	김승곤 감사위서기	함철주 17교구장	윤석민 예배위원
정선현 24교구장	안석현 제1교구위원장	김연근 양로원추진위원	김창국 감사위원	김중선 유년부장
임창식 영유초중도서실장	진학래 동산부장	김신국 1교구장	장승규 예배위원	전은배 20교구장
석영식 아멘찬양대장	구재완 중등2부장	송두섭 제1교육위원장	유상태 탁아부장	박상대 중등1부장
김규석 전도위원장	신광철 선교위서기	정창수 2교구장	엄복섭 가브리엘찬양대장	이상석 15교구장
오순도 외선부장	양기수 4교구장	김태식 당회부서기	김철환 16교구장	김연태 10교구장
김종홍 영아부장	장철환B 감사위원장	정태동 유아부장	이세영 할렐루야찬양대장	이성섭 기도원부장
장철규 21교구장	이보신 고등부장	이상해 13교구장	김성호 5교구장	조중민 8교구장
이호일 초등부장	추병창 유치부장	최세진 임마누엘찬양대장	김홍기 에바다부장	박광식 6교구장
류기명 14교구장	박성명 새가족양육부장	이상복 청년1부장	지규성 청년2부장	박종율 대학부장

■ 부 목 사

박인기 에바다부	정진호 제2교구위원회	김익환 제1교구위원회	장 훈 12교구	이희식 선교위원회
하종철 5교구	안치원 2교구	정충신 18교구	양재웅 편집국	이성진 6교구
이재영 청년2부	윤수일 3교구	황진섭 1교구	유재진 새가족양육부	강명구 11교구
김철규 20교구	양태선 17교구	유현철 대학부	탁정헌 4교구	김완수 외선부
최성득 22교구	최강전 23교구	박용현 24교구	강현철 9교구	이광현 16교구
강호성 21교구	윤요한 15교구	김근영 청년1부	박준식 8교구	최진철 19교구
정민권 14교구	김창성 7교구	이재현 초등부	이순식 중등1부	안일찬 고등부
송제호 중등3부	김성헌 중등2부			

■ 여전도사

윤인숙 15교구	김연식 3교구	홍순애 5교구	이옥주 18교구	김말자 16교구
김정연 8교구	강덕필 21교구	최문실 12교구	전은희 10교구	김정자 14교구
김정희 4교구	이복순A 20교구	류진희 2교구	한성임 7교구	임태주 17교구
강영미 22교구	옥미자 9교구	이복순B 11교구	전영희 19교구	이혜숙 6교구
황순란 청년1부	김정운 24교구	강옥련 1교구	정원임 23교구	서명란 13교구
조현영 고등부				

■ 사랑부 지도 신범식 ■ 외선부 부지도 강영기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연주자 장연희 노은영

■ 선 교 사 송요한

Copyright© 2009 충현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